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5년 3월 첫 번째 30권 5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1/2 항공대대 KTC서 훈련 마쳐
제61기 육사생도 용산기지 방문

3면 군관련 소식
서울 강남에 주한미군 공원 조성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194정비대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G메일 그리고 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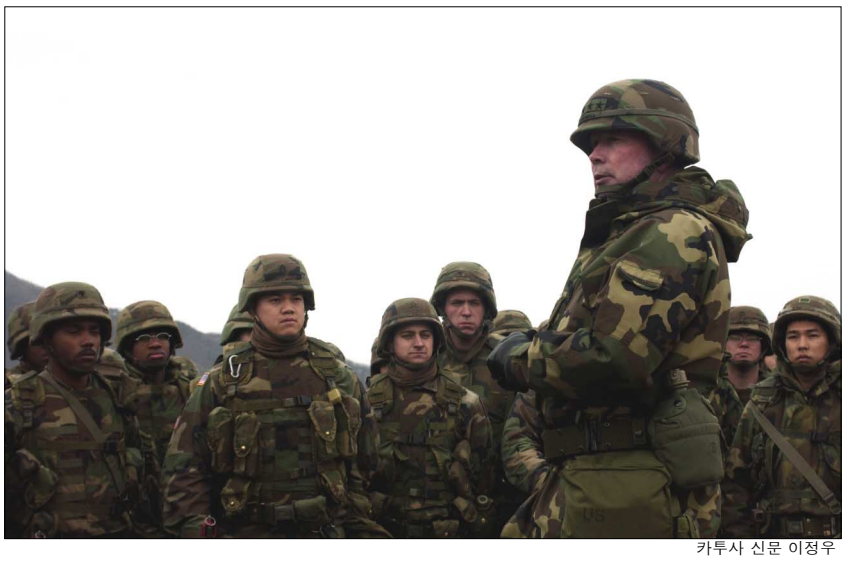
8면 안녕하세요
박민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5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7 항공여단 야전훈련 실시



카투사 신문 이정우

캠프 험프리즈 부근의 훈련장, 탐 레인지에 방문하여 제17항공여단을 비롯한 여러 부대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미 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

2월 11일 부터 일주일간 제 17항공여단은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즈 부근의 훈련장, 탐 레인지에서 야전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3월에 있을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훈련에 대한 사전 연습으로서의 의의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는 제 17항공여단의 부대 변동으로 인한 연합훈련 변화에 관한 사전 인수인계의 성격도 포함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 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이 UH-60 블랙호크 전술용 헬기를 타고 직접훈련장을 방문해 훈련 중인 미군들과 카투사들을 독려했다. 캠벨 중장은 훈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Ready to fight tonight'과 '같이 갑시다'의 구호를 명심하며 국방의 의무에 전심을 다 하자는 말도 잊지 않았다. 훈련에 참여 중이던 17항공여단 2항공대대 본부중대 작전과 S3 소속, 김지빈 상병은 "소속이 작전과이기에 언제나 작전에 참여하면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해야 되서 시간도 부족하고 몸도 많이 피곤하지만 훈련이 끝난 후에 돌아보면 열심히 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에 항상 뿌듯하다"고 말했다.

17항공여단 2항공대대 본부중대 소속 김현종 상병은 모든 훈련이 자신에게는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훈련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이번이 제 군생활에서의 마지막 훈련이 되어버린지라 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대내의 막사가 아닌 야전텐트 속에서의 생활이 춥기도 하고 잠자리도 불편하지만 훈련이 끝이 날 무렵에는 언제나 가슴속에 잔뜩 무언가를 담아가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252 예비 전술 항공부 소속의 무어 리로이 병장은 "이 훈련은 부대들이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어떻게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훈련은 미군과 카투사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야전에서 같이 땀을 흘리면 전우애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도 카투사와 미군의 우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

이병 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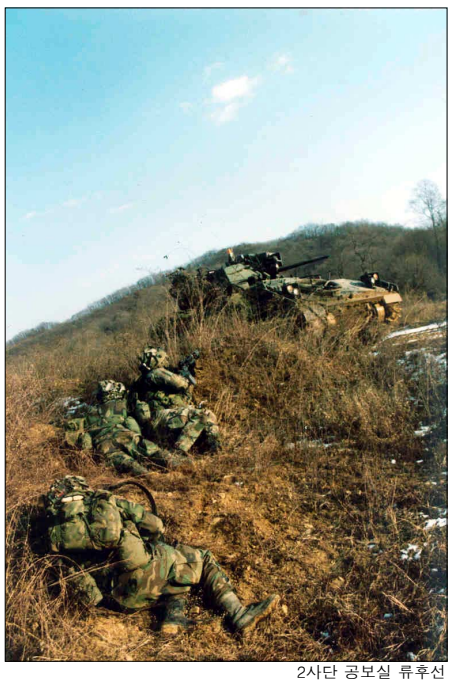
2/9 보병대대의 대항군 훈련

지난 2월 2일, 루스터 8 지역에서 2/9 보병대대 B중대와 D중대는 맹추위 속에서 훈련에 돌입하고 있었다. 2/9 보병대대는 브래들리 전차와 이 전차에서 튀어나오는 하차병들로 대표되는 부대이다. 이번 훈련은 전시에 2/9 보병대대원들이 맞닥뜨리게 될 보병과 보병간의 전투상황을 전개하는 마일스 기어를 사용한 중대 대 중대의 '포스 온 포스' 모의가상 훈련이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2/9 보병대대 D중대 정영모 이병은 "훈련하기 전에 하차하는 지역이 결정이 된다. 브래들리가 그 지역에 도착하면 안에 타고 있는 보병 같은 경우에는 하차 직전에 경적이 두 번 울리게 된다. 램프가 켜지면 신속하게 하차를 하여 지역을 사수한 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자신의 기본 임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하차한 보병은 여러모로 적군에게는 위협적이다. 하차병의 경우 대전차 무기로 신속하게 적군의 수비망을 뚫고 들어가 적의 전차를 제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 보병대대 D중대 케빈 페론디 일등상사는 "정보야말로 부대의 작전과 기동 수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브래들리 전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브래들리 전차에서 하차하여 수색작업을 펼쳐 적의 정보를 수집, 상부에 전달하는 보병들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훈련에서 하차병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서 아군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이 원하는 방식의 전투가 아닌 아군이 원하는 전투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한 후, 이 모든 것의 열쇠를 하차병들이 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날, B중대와 D중대는 각각 수비와 공격으로 나누어졌다. 중대 대항이다 보니 자부심과 경쟁의식 또한 치열하였다. 2/9 보병대대 B중대 케이시 베롭스키 일병은 "두 중대 중 한 중대가 이기면 다음 포스 온 포스까지 패한 중대에게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서로



2사단 공보실 류후선

매복하여 브래들리 전차를 노리는 B중대원들.

2면으로 계속...

1 면에 이어서...

절대로 지고 싶지 않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수비 측은 산속 골짜기를 사수하는 역할을, 공격 측은 골짜기를 따라 안전한 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적군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9 보병대대 D중대 스티븐 킹 하사 는 "두 중대의 브래들리 전차 4대가 서로 접전을 벌이게 된다"며 이날 훈련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가상 적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가상 적군으로서 B중대의 공격을 교란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은폐 및 엄폐를 통해 매복을 하고 적을 기다렸다"고 설명하였다. 2/9 보병대대 D중대 에론 브라운 중위에 의하면 병사들이 은폐, 엄폐를 하는데 생각 의외로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비록 겨울이긴 하나 골짜기라서 숨을 곳이 많아서 특별히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도 숨을 수 있었다. 적이 우리를 찾는데 적어도 한 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매복한 우리는 적의 하차병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설명하였다.

킹 하사는 "적이 가까이 왔을 때는 적을 혼란 상태에 몰아넣기 위해 일부러 발포를 하여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매복이 성공하여 적의 하차병들과 브래들리 2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만약 수비 측이 아닌 공격 측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전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실전과 같은 강도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전투를 치르는 가상 적군 외에도 살을 에는 추위라는 또 다른 적이 있었다. 2/9 보병대대 D중대 게럿 본드 상병은 "이번 훈련에서의 가장 큰 관건은 혹한과의 싸움"이라며 "혹한 속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병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위를 이겨내려고 노력한다. 추위를 이겨내고 작전을 완수할 때 이번 훈련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사단 공보실 상병 서석호

카투사 신문 최의진

육군사관학교 제61기 남녀 생도 235명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 기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발보니 극장에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과 만남을 가진 후 4명씩 조를 이뤄 미8군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을 비롯, 총 54명의 주한미군 장교 집으로 초대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1/2 항공대대 KTC에서 훈련 마쳐

지난 2월 1일, 경기도 포천군의 영평사격장(이하 KTC)에서 제2항공연대 1대대가 훈련을 실시하였다.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아파치 헬기의 사격과 차량호송을 그 주된 훈련 목표로 하였다.

이날, KTC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 총성과 함께 병사들의 훈련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관제탑은 아파치 헬기에 신호를 발수신하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1/2 항공대대 대대장 챈들러 셔렐 중령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추위에 굴해선 안 된다고 병사들에게 일러주고 있으며 병사들도 이에 잘 따라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훈련에 참가한 병사들 중에는 시뮬레이터를 벗어나 실사격을 처음 해보는 병사들도 있다. 그들은 모두 이번 실사격 훈련에 대한 기대에 차 있다"고 말했다.

아파치 사격에는 돌진사격, 상승사격, 하강사격 등이 있는데 이날 이루어진 훈련은 하강사격이었다. 이 사격 방법은 지상으로 사격을 가하는 것으로써 베트남전부터 활용되었던 오래된 기법이며, 지상의 우호 부대를 지원해 주기에 적절한 사격 방법이다. 셔렐 중령은 "사실 사격훈련은 시뮬레이터로 얼마든지 훈련이 가능하며 1/2 항공대대는 이를 여러 번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며, 실사격 훈련은 병사들이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미 2사단에서는 분기별로 실시, 연 약 4회 정도로 실사격 훈련을 함으로써 병사들에게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격 훈련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공사진

같은 부대에서 이번 훈련의 지도를 맡고 있는 리차드 핸들런 준위는 "사격술 훈련에 60여명의 파일럿이 참여하였다. 최종평가인 테이블 8의 연습 단계라 할 수 있는 테이블 7과 테이블 8의 사격이 각각 낮과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2000피트 높이로 날아가다가 점차 하강을 하며 사격을 하게 된다. KTC는 분지 지형 때문에 직선사격 등 보다 하강사격 훈련에 용이하며, 이는 한국 지형에도 적합하여 안성맞춤이다"며 훈련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곳에서 떨어진 KTC의 워리어 밸리에는 차량호송 훈련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602 항공지원대대 오스카 블레인 준위는 "실사격 아래 이루어지는 차량호송 훈련은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대 이라크전에서 미 2사단 장병들은 물론 다수의 장병들이 호송 중에 전사하였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시에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며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이어 "이틀에 걸쳐 훈련이 진행 되며 화학전에 대비한 훈련과 모의 전자기만 훈련이 진행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카투사들도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훈련을 가능케 하였다. 2/2 항공대대 본부중대의 남현수 이병은 "아직 신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경비를 맡으러 와 있으며 훈련장 주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주요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훈련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날은 매서운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그 어느 때 보다 낮은 하루였다. 하지만 미 2사단 장병들은 훈련에 대한 열의로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 ■

2사단 공보실 일병 고상순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 이며 전화번호는 723-3134/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do.ho.kim@usfk.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 이세희
편집장
일병 김도호
기자
일병 최의진
이병 심영식
이병 이정우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Pfc. Kim, Do-ho
Staff Writers
Pfc. Choi, Eui-jin
Pv2. Shim, Yung-sik
Pv2. Lee, Jung-woo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3134/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do.ho.kim@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3134

E-mail:do.ho.kim@usfk.korea.army.mil

서울 강남에 주한미군 공원 조성

제공사진

전국 최초로 주한미군 공원이 서울시에 들어선다.

강남구청이 반세기 동안 한반도 안보의 중심 축 역할을 해 온 한, 미 동맹관계를 기리고 보다 역동적인 새로운 한, 미 관계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키로 한 것.

2일 미8군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내달 1일 개포 2동 대모산 인근 달터 근린공원에서 한, 미 친선 1000그루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공원 일부를 주한미군 공원으로 명명키로 했다.

식목일이 있는 내달 초에 실시하는 기념 식수 행사에는 한, 미 장병과 강남구청 직원,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 관, 군이 하나 된 뜻 깊은 한, 미 친선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은 "새로 조성될 공원 입구에는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42명의 고귀한 주한미군 장병들을 추모하는 묘비와 명판도 함께 세워질 것"이라 말했다.

이번 식수 행사는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캠벨 사령관이 지난해 말 구청과 미 8군이 자매결연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한미군 공원을 명명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강남구가 기증한 묘목 1000여 그루를 미군 장병 100여 명과 서울 미국 고등학교 학생, 한, 미 친선 관련 단체, 국방대 교직원, 군부대 장병들이 대거 참석해 역동적이고 새로운 한, 미 동맹의 튼실한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강남구청은 지난달에는 미군 장병들을 초청해 따뜻한 설 명절을 함께 보냈으며 내달 말에는 미 8군 군악대가 대모산 인근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열린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행사 관련 미군 관계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식목 행사는 미래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달에 심을 나무처럼 한, 미 동맹도 쭉쭉 뻗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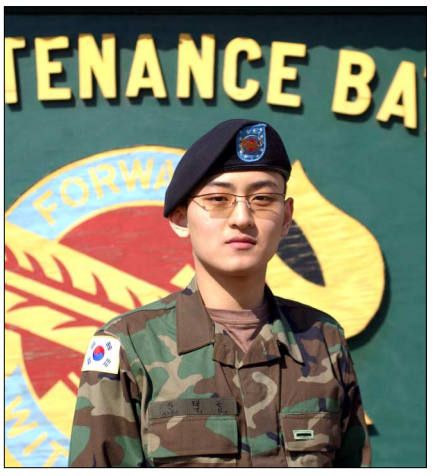
국방일보 제공

카투사 신문 김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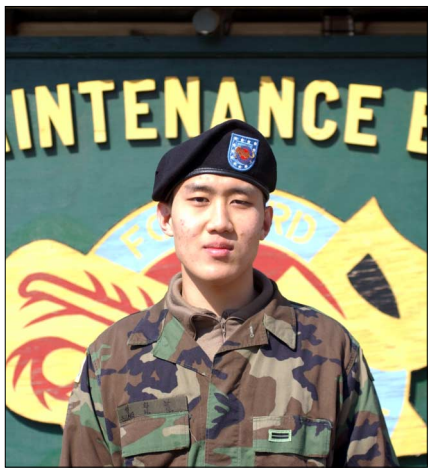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 미 8군 소속 한국 특수전 교육 파견대원들은 육/해/공군의 국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국내의 종합 훈련장에서 특수전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훈련을 담당한 교관에 의하면 특수전 교육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장교들은 이를 단시간에 훌륭하게 소화해 내었다고 한다. 이날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F-16 및 A-10 전투기가 지원되어 국군 장교들과의 교신 하에 실제로 폭격이 실시되었다. 사진은 발사되는 미사일의 목표 지점을 조종사에게 알려주기 위한 레이저 장치를 설명받고 있는 국군 장교들.

카투사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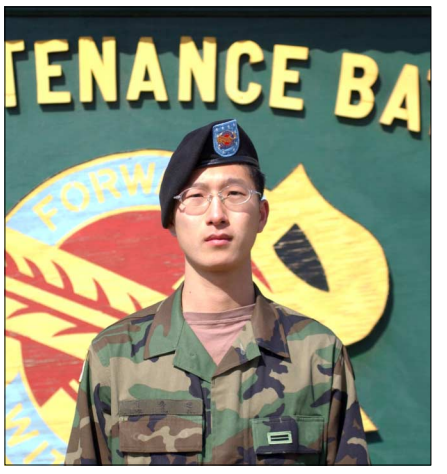
군생활을 통해 얻은 것


194정비대대 348병참중대
이병 안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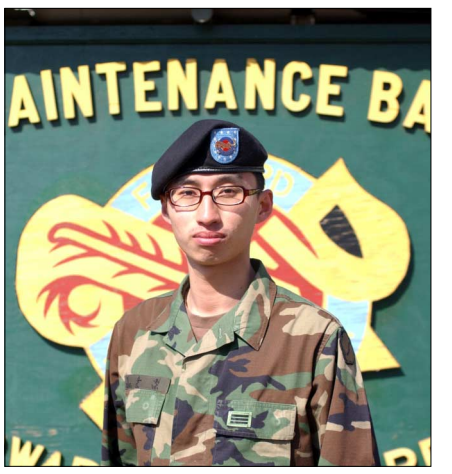
카투사로서 미군과의 생활 중 가장 큰 경험은 문화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오해를 풀고 또 동반자로서의 한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도와주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은 제 평생을 두고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194정비대대 348병참중대
일병 성화남

제가 군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군과의 근무 중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대장의 각종 불합리한 처사도 수양하는 마음으로 꾹 참다 보면 어느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군생활을 통해 얻은 이러한 인내심, 빠른 상황판단능력과 임기응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4정비대대 본부중대
일병 이승신

지금까지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카투사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낯선 환경에서 미군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중대원의 충분한 배려와 많은 조언들이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이해, 힘든 훈련 등에서 저는 좋은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정비대대 520정비중대
상병 정승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건강해져서 혹한기 훈련을 통한 극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생기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선 후임병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 및 또 다른 사회생활의 경험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룸메이트와의 생활과 미군들과 외출 등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심을 기를 수 있었고 영어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4 정비대대

카투사 신문 최의진

코앞에 다가온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때문에 기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번 부대탐방의 주인공인 19 전지사 23지원대 194정비대대가 있는 캠프 험프리즈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꽃피고 봄이 오는 3 월이고 입춘이 지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차가운 바람과 며칠 전에 내려 드문드문 쌓인 눈은 그 추위로나 시각적으로나 아직 완연한 겨울이었다. 처음 가보는 평택이기도 하고 2008 년에는 용산기지가 이전하여 주한미군의 중심지가 될 캠프 험프리즈이기에 기대에 부푼 마음을 안고 남쪽으로 향했다. 오산 공군기지를 경유하며 두 시간 가량 이동한 후 기자는 캠프 험프리즈에 도착하였고 194정비대대의 선임병장들과 조우 할 수 있었다.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자 194정비대대 본부중대 선임병장 김성현 병장이 부대의 역사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제공사진

"194정비대대는 1927년 제 8차량 정비대대로 정규군이 창설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1936년 제 57병참연대로 개편하였고 1942 년에는 미시시피 주에 위치한 캠프 셀비에서 제 47병기 중정비 연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후 1942년에는 부대가 임시로 해체되었고 제 1대대가 194 병기 중정비 대대로 재편한 이후 1967년 현 194 정비대대로 개편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대한민국으로 부대가 재편되어 현재까지 이곳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즈에서 활동 중입니다."

약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194정비대대는 19전지사 23지원단에 속해있으며 총 5개의 중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194 정비대대의 인사과, 정보작전과 등 대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본부중대 및 348병참중대, 520 정비중대, 찰리 중대와 골프 중대가 그것이며 각기 다른 특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48 병참중대는 제 3지역 모든 부대원들에 대한 물자 보급 및 반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물품 보급소에서 물자의 종류별 분류, 보관, 보급 및 각 분출처의 수송을 담당하며 타 부대에 대한 물, 유류의 공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 임무가 이름 그대로 정비인 520정비중대는 못 쓰게 된 물품을 반납 받고 상급부대로 다시 반납하여 새 물품을 신청, 각 부대에 분배 및 공급한다고 한다. 또 제 3 지역 대부분의 부대 차량의 엔진, 기계류, 차량 부속품 등을 정비하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4 정비대대 520정비중대 선임병장 허우석 병장은 "우리 520정비중대는 다른 정비 중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가 가능한 곳이다. 다른 곳에서도 못 고치겠다 싶으면 우리 중대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며 520정비중대의 높은 정비 실력을 자랑했다. 곧 6 항공소속으로 재배치될 찰리 중대는 소수의 카투사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시누크, 블랙호크 등 항공기를 관리하며, 항공기 부품 보급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여타 다른 중대와 달리 캠프 이글에 위치한 골프중대는 다른 중대의 카투사들과는 왕래가 없는 곳 이었는데 아파치 등의 헬기를 관리하는 중대로써 이에 대한 물품 보급 및 관리유지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며 곧 미국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각 중대에 소속된 카투사들의 대다수의 인원이 행정병 또는 보급병이며 520 정비중대에 속해 있는 카투사들은 직접 정비를 하지는 않지만 차량점검 및 정비지원 업무를 한다고 한다. 허병장은 " 처음에 신병이 들어오면 정비책자를 보고 기본적인 차량 점검 법을 배우게 된다. 기본적인 점검기술을 익히고 모터풀에서 업무를 하고 지내다 보면 제대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웬만한 차량의 정비도 가능할 수준 " 이라고 말했다.

194 정비대대는 제 3 지역 전체의 보급 및 정비를 담당하며 부대원들이나 장비들의 움직임이 많은 부대라고 한다. 이 때문인지 크레인 종류의 대형 차량에서부터 험비와 같은 비교적 작은 차량까지 다양하게 주차되어있는 캠프 험프리즈의 194정비대대 모터풀은 주차장이 아니라 거대한 비행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194 정비대대의 대대선임역을 맡고 있기도 한 194정비대대 본부중대 선임병장 김성현 병장은 194대대의 병영생활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올 초 쓰나미 참사 때문에 참사지역으로 차량 지원을 나가야 했기에 520 정비중대에서 험프리에 있는 거의 모든 차량을 정비하느라 바빴었다고 말하며 그 후 대대단위로 다녀온 훈련 이야기를 꺼냈다.

" 매년 여름에 각 중대에서 1 주일 정도의 개별 훈련을 실시합니다. 가을 즈음 되어서는 대대에서 실시하는 야전훈련연습(Field Training Exercise)이라고 불리는 훈련을 합니다. 약 2 주일의 기간 동안 두 번 실시하고 가장 추운 1 월에 역시 야전 훈련인 엑시발(Exercise Evaluation)을 실시합니다. 엑시발은 상급 부대인 23지원대에

제공사진

서 194 정비대대를 평가하는 것 인데 시험 성격을 띠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야전훈련 연습을 시행하는 것 입니다.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이나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은 같은 경우 저희 부대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중대에서 2~3명 정도의 인원이 각기 다른 작전 지역으로 디테일 형식으로 파견되어 약 45일 가량 텐트에서 훈련 업무를 수행 하게 됩니다."

야전훈련연습이나 엑시발 등의 야전훈련에 대해 질문하자 김병장은 "주 임무는 훈련에 필요한 본부기지 및 사무실, 텐트 등의 설치와 참호 방어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며 훈련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설치에 필요한 장비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또 김병장은 "모든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는 그 주위로 특정한 규격에 맞추어 참호를 판다"고 말하며 "겨울 훈련 때는 땅이 얼어 잘 파지지 않아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며 훈련에서의 힘들었던 추억들을 털어놓았다.

"겨울에도 참호를 파기 힘들지만, 또 여름에는 비가 자주와 땅이 다져지지 않아 참호를 파기 힘들었습니다. 참호를 다 판 다음에는 그 속에서 교대로 경계근무를 서야 했는데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덥고 비가 올 때는 흠뻑 젖어야 하고 겨울에는 또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하는 등,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한번은 구조물 설치를 마치고 참호까지 다 파놓은 직후 갑자기 훈련지 이동 명령이 떨어져서 그대로 설치했던 것을 분리하고 다른 훈련지로 이동하여 다시 구조물 설치하고 참호를 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하기 싫을 만큼 힘들었었지만 지금까지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고 후에 두루두루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 또한 훈련지에서의 동료들과 고생했던 추억들인 것 같습니다."

194 정비대대는 부대의 자랑거리로 특유의 선후임간의 단합정신과 운동실력을 꼽았다. 그 예로 194정비대대는 매년 봄에 실시하는 카투사 위크에서 4년 연속 제 3지역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고 한다. 통산 3회 우승하면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월드컵의 우승컵처럼 이들은 이미 하나의 카투사 위크 우승 깃발을 가지고 있었고, 2004년에 한 번 더 우승하게 되면서 이들의 본부 사무실에는 우승 깃발이 하나 더 꽂혀 있었다. 194정비대대 348병참중대 선임병장 신중하 병장은 "운동회처럼 여러 구기 종목, 씨름, 달리기, 줄다리기, 음식 경연대회 등이 있고 제 3지역의 약 10여개의 대대가 서로 경쟁 하는 대회이다. 우리 194 정비대대는 주로 농구, 배구, 야구, 줄다리기, 음식 경영대회 등에서 1위를 차지해 4년 연속 종합성적 1 위를 했다"고 뿌듯하게 말하며 "다른 곳에서는 194정비대대가 이번에도 우승했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194 정비대대는 또 여러 대외활동을 펼치며 평택시민들과 교류도 하며 부대원들 간의 친목도 다지고 있었다. 작년 추석 같은 경우, 194대대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평택 시내에 있는 은평 고아원을 방문하여 칠면조 요리 및 아이들을 위한 여러 선물을 자비로 준비하여 방문해서 파티를 했었다고 한다. 또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대대에서 은평 고아원 아이들을 부대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게임 및 선물 증정식 등을 하며 친목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194정비대대는 대대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고아원에 장학금을 수여하고,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영어 교육을 실시하여 모 방송국의 뉴스에도 나온 적 이 있는 등 좀처럼 보기 드문 선행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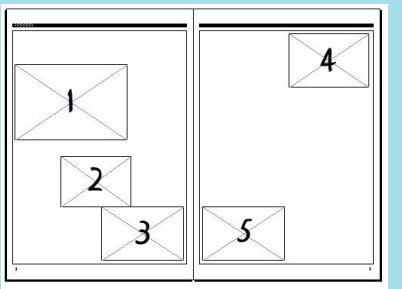
카투사 신문 최의진

대다수의 194 정비대대 인원은 미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근무 외 시간에도 막사에서 당구를 치거나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잘 어울리고 있다고 한다. 또 이들은 매년 약 두 번씩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한국의 관광지를 찾아내어 여행을 가고 친목 도모 한다고 한다. 194 정비대대 520정비중대 유종원 상병은 "미군 문화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해서 막연하게 낯설었던 것이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적응되었다. 다른 문화를 처음으로 근접하게 겪어본 것이 나의 군 생활에서 가장 남는 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들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기에도 카투사와 미군들과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는데 자신을 카투사의 대부라고 말하며 194 정비대대 선임 하사관 바이론 포웰 중사는 194정비대대 소속의 카투사들을 여러모로 칭찬했다. "우리 카투사들은 매우 뛰어나다. 매우 민첩하고 작업능률 또한 매우 훌륭하다. 또 미군들과의 사이도 돈독해 마치 한 가족 같이 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론 미군들도 그래야 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카투사들도 다른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더 보람찬 병영생활을 위한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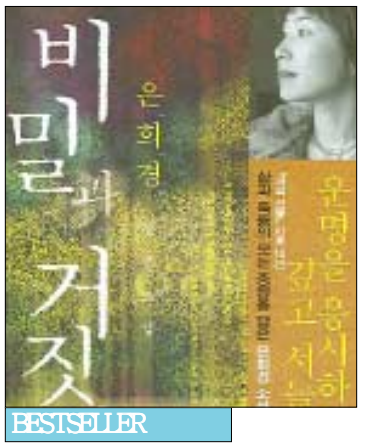
모든 탐방 일정이 끝나갈 무렵 캠프 험프리즈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새삼 이런 추운 날씨에 야전 훈련을 하고 야외에서 업무를 하는 카투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 부지런히 움직여 가능한 많은 부대를 신문에 담는 일이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길일 것 이란 생각이 들어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새로이 할 수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많은 협조를 해준 194 정비대대 카투사 장병들이 동행해주었고 기자는 인사를 나누며 평택을 뒤로 하고 용산행 버스에 올랐다. ■

일병 최의진

카투사 신문 최의진



1. 194정비대대 모터풀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안태근 이병과 리오넬 오르테가 일병, 조쉬 테일러 일병의 모습.
2. 작년 겨울 야외 훈련 연습 중 막사에 난로 설치를 완료한 후 포즈를 취한 대대원들.
3. 작년 겨울 야외 훈련 연습 도중 점심으로 전투식량을 먹고 있는 대대원들.
4. 194정비대대 성화남 일병과 커릴라 페이드로 일병, 그리고 스미스 코디 일병이 험비에 캔버스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5. 본부중대 소속 차상욱 상병이 194정비대대 선임하사관 바이론 포웰 중사로부터 지시사항을 듣고 있다.



비밀과 거짓말

은희경 / 문학동네

연대기적 사건 사실들을 유려하고 섬세한 문체로 엮어가며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사실들이 거짓과 비밀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삶의 불완전성을 폭로하는 <비밀과 거짓말>. 공들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하면서도 거기서 느껴지던 발랄함이라든가 경쾌함 대신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무겁고도 깊은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별천지

www.bulchunzi.com

논산 훈련소에서의 경계근무를 기억하는가? 경계가 있는 새벽, 문득 칠흑같은 논산의 밤하늘을 바라보면 유난히도 많던 별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K-2 를 손에 들고 초소앞을 지키던 우리의 마음을 감상적으로 만들곤 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이트는 별이란 무엇인지, 왜 별은 반짝이는지. 별의 상식과 별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말해주어 그때의 감상을 한껏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Biz - Whiz

제 6 장

Winglish.com

***Describing products 1**

직접 물건을 구입하러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래 대화에서 A 는 종업원 (seller) 이고 B 는 여러분 (customer)입니다.

A: 뭘 도와 드릴까요?

B: 네.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A: 이 카타로그를 보시죠.

B: 고맙습니다.

A: 마음에 드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전문가용을 보여 드릴까요, 취미용을 보여 드릴까요?

B: 취미용으로 보여주세요.

A: #354-f 모델을 한번 보시죠. 가볍고, 작동하기 쉽고, 가격도 적당하지요.

B: 배터리와 전기 공용인가요?

A: 네. 공용이지요

key expressions)

1. 비디오 카메라: a camcorder
2. 구입하고싶다: would like to buy
3. 마음에 드시는 것: anything have in mind
4. 취미용: for family use
5. 전문가용: for professional use
6. 작동하기 쉽다: easy to operate
7. 배터리 전기 공용: be adaptable for either battery or AC

A possible translation)

A: Can I help you?

B: Yes, I'd like to buy a camcorder.

A: Okay. Would you like to look at this catalog?

B: Thank you.

A: Which one do you have in mind? For professional use or family use?

B: For family use please.

A: How about this model #354-f? It's light, easy to operate and the price is reasonable, too.

B: Is this model adaptable for either battery or AC?

A: Yes, you can use either.

Business dictionary)

1. draw: He drew 300$ out of his account yesterday.
2. draw: This check is drawn on a foreign exchange bank.
3. drawee: The drawee must accept only checks that the drawer signs.

번역)

1. 그는 어제 그의 구좌에서 300달러를 인출했다.
2. 이 수표는 외환은행에서 발행되었다.
3. 어음 수취 은행은 어음 발행인이 서명한 수표만 받아야 한다.

***Describing products 2**

B: 이 배터리는 몇 시간용인가요?

A: 이 리튬 배터리는 48시간용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면 충전이 됩니다.

B: 혹시 색깔이 다른 모델 있나요?

A: 네, 4 가지 종류가 있지요. 회색, 검정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이 있습니다.

B: 내수성이 있나요?

A: 아뇨. 아시다시피 전자 제품은 물에 약하지요.

B: 부품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A: 물론이죠. 렌즈 및 충전용 배터리는 같은 회사의 타제품과 호환됩니다.

Key expressions)

1.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how long ~ last
2. 48시간용: last for 48 hours
3. 2 시간 충전: two hours to recharge
4. 내수성이 있는: water resistant
5. 물에 약하다/ 물과 함께 하면 안 된다: don't mix with water
6. 부품: spare parts
7. 호환 가능하다: be compatible with ~

A possible translation)

B: Could you tell me how long this battery lasts?

A: This lithium battery lasts for 48 hours and it takes two hours to recharge.

B: Do you have any other model with a different color?

A: We have four different colors for this model, Gray, Black, Blue and White.

B: Is this model water resistant?

A: No, as you know, most electronic goods don't mix with water.

B: Can I get spare parts for this model easily?

A: Yes, of course and some of the spare parts such as lensand rechargeable battery are compatible with the other camcorder made by same company.

Business dictionary)

1. easy money: In some respects, investment in stocks can bring us easy money.
2. economic: The company has faced economic crisis since 1997.
3. economical: They make every effort to produce more economical machines.

번역)

1. 어떤 점에서 주식투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
2. 그 회사는 1997년 이후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3. 그들은 더 많은 절약형 기계를 생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

***Describing products 3**

B: 이 제품의 품질 보증에 대해 알고 싶군요.

A: 구입하신 날짜로부터 1년 이내 문제가 있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됩니다.

B: 이 충전용 배터리도 문제가 있으면 보상 되나요?

A: 이 배터리는 6개월 보증이 되지요.

Key expressions)

1. '제품의 품질 보장' warranty service for a model
2. '구입한 날짜로부터 1 년 이내'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3. '같은 제품으로 교환가능' can exchange it with another one of the same model
4. '충전용 배터리' rechargeable battery
5. '보상이 되다' covered by warranty service
6. '6 개월 보증' 6 month warranty

A possible conversation)

B: Is this model covered by warranty service?

A: Yes, and if you have any problem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you can exchange it with another one of the same model.

B: How about this rechargeable battery?

A: This battery has a 6 month warranty.

■ 카투사 기고문

G 메일 그리고 구글

-1.메일 서비스 업계의 혁명

작년 구글이 G 메일(www.gmail.com)이라는 웹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아직은 시범 서비스 단계이지만, 불필요한 배너 광고와 기능을 빼버린 구글 특유의 깔끔한 화면, 1GB(기가 바이트)라는 엄청난 메일 저장 용량으로 'Don't throw anything away' 라 외치며 사용자들을 유혹한다. 또 E메일을 편지함에 따로 분류해 관리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Search, don't sort' 라며 자신들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G 메일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 다른 웹메일 서비스에서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편지함' 이라는 개념이 없다.) 거기다 이러한 시범 서비스를 마음대로 가입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용자가 초대를 해 주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 초대의 횟수마저 제한해 버려서 G 메일 초대권을 얻기 위한 블로그가 생기기도 하고, 이베이(www.ebay.com) 등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는 G 메일 초대권이 매물로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G 메일 효과 덕분에 다음, 야후, 핫메일 등의 대형 포탈들마저도 무료 E메일 계정 용량을 100MB, 200MB 씩 늘리는 등 잔뜩 긴장하는 눈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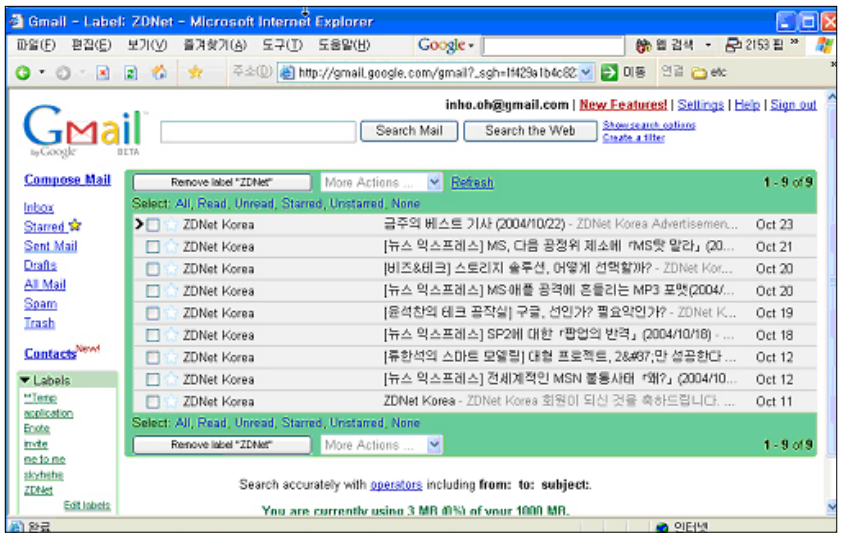
이뿐 아니라, 구글은 각 국가별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함과 함께, 이번 달 (10 월)에는 데스크탑 검색 툴을 발표하였으며, 메신저 시장에도 뛰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9 월에는 주식 공모를 통해 17억 달러를 벌어 들였으며, 기업의 시가 총액이 25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야후의 시가 총액이 370억 달러 정도 된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주변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구글이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G 메일, 구글스러움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다.

지난 2004년 3월 말, 구글은 1GB의 용량을 제공하는 무료 E메일 서비스의 시범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그 뒤 4 월 초에 군입대를 하여서 구글이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였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구글이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결국 초대를 받아 G 메일을 사용해 보게 되었다.

G 메일(www.gmail.com)에 처음 접속하여 로그인 화면을 보자. 다음, 야후 등의 복잡한 웹사이트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단순한 화면에 약간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다. 로그인을 해 보면 더욱 심하다. 그림이라고는 왼쪽 상단에 Gmail 그림뿐, 나머지는 모두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사용 환경)는 다른 웹메일 사이트들처럼 HTML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 자바스크립트로만 만들어져 있고 모두 객체화 되어 있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새로 읽어 들일 뿐 다른 부분은 변하지 않아 빠른 로딩 속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편지함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레이블(label)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서 메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서류에 레이블을 붙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의 E메일에 여러 개의 레이블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E 메일은 편지함에 분류되어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ll Mail 이라는 곳에 한꺼번에 저장되며, 필요한 것만 레이블이 붙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필요한 메일을 다시 찾을 것인가. 1GB 라는 용량에 E 메일이 가득 차 있을 경우, 그것도 편지함에 분류도 되어 있지 않은데, 레이블마저도 붙여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E메일을 다시 못 찾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때 쓰라고 있는 것이 화면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구글의 자랑스러운 기술, 검색 기능이 아니겠는가. 구글은 1GB라는 E메일 더미를 일일이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자신들의 검색 기술을 이용하기를 요구한다. E메일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있는 화면 구성, 빠른 로딩 속도를 보장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검색 기능. 구글답지 않은가.



제공사진

G메일의 사용 환경.

물론 G메일이 칭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사용자의 E 메일 내용에 근거해 광고를 노출시키는 타겟 광고인데, 이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G메일을 사용하다 보면 메일을 읽을 때 화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텍스트 광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글로 된 E 메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광고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 했다.) 이것은 그냥 일반 광고가 아니다. 광고 크기로 보자면 아주 작고, 그냥 텍스트로 된 광고에 스폰서가 링크만 되어있어서, 다음이나 야후 등에서 나타나는 배너 광고에 비하면 신경도 쓰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광고가 사용자의 E 메일 내용을 근거로 해서 노출되는 광고라는 점이 문제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자신의 E메일을 누군가가 (설사 기계,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보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 법이므로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라 구글이 이러한 방식을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따라서 G 메일 사용자는 G 메일 서비스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약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G 메일 서비스는 자신의 PC 에 E메일을 저장해 오던 사용자들을 웹메일 서비스로 끌어 들이는 데 충분한 매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아웃룩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중요한 E 메일, 첨부 파일들을 용량이 한정된 웹메일에 저장할 수 없어서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웹메일 서비스 사이트들이 E메일 서비스와는 관련되지 않은 잡다한 기능, 광고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G메일은 1GB라는 용량으로 이러한 용량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구글다운 간단하고 직관적인 메뉴 구성, 빠른 화면 이동, 그리고 배너 광고가 아닌 작은 텍스트 광고로 마치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E메일 프로그램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 G 메일의 성공은 구글의 목표라 생각되는 PC 사용자들을 윈도우 하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네트워크상의 구글 서비스로 끌어 오는 작업의 성공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다. ■

6 병기대대 본부중대 일병 오인호

레이

감독: 테일러 핵포드

주연: 제이미 폭스, 케리 워싱턴

발매하는 음반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음악인으로서 성공하지만, 6 살의 어린 나이에 목격한 동생의 죽음이 환영처럼 따라다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암흑 속의 공포, 철저히 혼자라는 외로움은 그를 마약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든다. '델라' 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점점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데...

어머나

장윤정

2.반대가 끌리는 이유/god
3.꽃들은 지고/이수영
4.사랑은...하나다/테이
5.행복하지 말아요/MC THE MAX
6.둘이서/채연
7.누구와 사랑을 하다가/휘성
8.빙고/거북이
9.Memory/김범수
10.달/박정현
11.이탈/코요태
12.겨울 일기/장나라
13.Blue Sky/ 토니안

"깜찍, 상큼, 발랄" 전~부다 '민지'꺼!! 박민지~!!

어느덧 봄이 찾아와 따스한 햇볕이 취재길에 오른 기자를 감싸 준 이른 아침, 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상큼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박민지양을 만나러 그녀가 한창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던 부천시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를 찾았다. 올 초 독특한 소재의 영화 '제니, 주노'의 여주인공인 '제니'로 출연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영화는 물론,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곳에 도전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은 발랄한 박민지양의 활약이 기대된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열일곱살이 된 박민지라고 합니다. 영화 '제니, 주노'를 찍고, 지금은 드라마 '열여덟, 스물아홉'에서 박선영씨의 아역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 어린나이로 연기를 시작 했는데 힘든점

나이에 상관없이 연기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약간 벅찬것도 있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되어서 보통 친구들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없고 그들처럼 공부를 한다거나 놀러다닐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 촬영을 할때 힘들었던 점

처음하는 연기니까 아무래도 서투른 점이 많았고, 감정이 요구되는 장면을 촬영할때나 집중을 해야 하는 장면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하루종일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는 장면을 하루에 몰아서 촬영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 존경하는 연예인

전도연 선배님입니다. 영화마다 다른 배역의 이미지를 잘 소화해 내시는 모습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 모습들을 해내는 것이 꿈인 저도 전도연 선배님의 장점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 앞으로의 꿈

멀리 내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 지금 학생이니 공부도 열심히 하며 연기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훗날에 제 후배들이 인터뷰 할 때 제 이름을 말하며 절 본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 카투사들에게 한마디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날씨가 아직까지 쌀쌀하고 추운데, 훈련하실 때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

이병 심영식